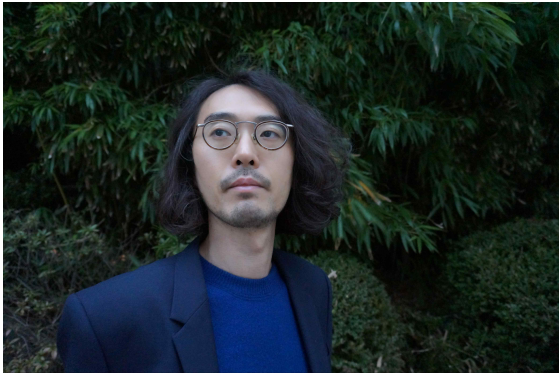


## 제9회 김현문학패 수상자 발표

시 / 황유원



소설 / 김이설



사단법인 문학실험실이 제9회 김현문학패 수상자를 선정·발표했다. 2013년 『문학동네』를 통해 등단해 세 권의 시집을 내며 “형이상학적 사유를 통해 삶의 실감을 이끌어내온” 황유원 시인과 2006년 『서울신문』과 『대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해 “평정을 유지하며 읽기 힘들 만큼, 통제되지 않는 ‘생활’이 날것 그대로 드러나는 소설 세계”를 직조해온 김이설 작가가 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시인 소설가에게는 김현문학패와 함께 각각 1,000만원(시 부문), 1,500만원(소설 부문)의 창작지원금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9월 22일(금)에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열릴 예정이다.

### 황유원—삶의 갈림길을 발견하고 깊게 사유하여, 그 절박함을 대면시키는 시인

**황유원 시인** 1982년 울산에서 태어나, 서강대학교 종교학과와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대학원 인도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3년 『문학동네』를 통해 등단하여, 시집 『세상의 모든 최대화』, 『이 왕관이 나는 마음에 드네』, 『초자연적 3D 프린팅』을 펴냈으며, 현재 번역가로 활동하며 『모비 딕』, 『바닷가에서』, 『밤의 해변에서 혼자』, 『유리, 아이러니 그리고 신』 등 다수의 역서를 펴냈다. 김수영문학상, 대한민국예술원 젊은예술가상, 현대문학상을 수상했다.

### 김이설—피하고 싶은, 그러나 엄존하는 세계 속으로 우리를 이끄는 소설가

**김이설 소설가** 1975년 충청남도 예산에서 태어나, 2006년 『서울신문』과 『대전일보』의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다. 소설집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들』, 『오늘처럼 고요히』, 『누구도 울지 않는 밤』, 연작소설집 『잃어버린 이름에게』, 장편소설 『나쁜 피』, 『환영』, 『우리의 정류장과 필사의 밤』, 중편소설 『선화』를 펴냈다. 황순원신진문학상, 젊은작가상을 수상했다.

\* 인물 이미지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 제9회 김현문학패 선정 과정\_김현 33주기를 맞이하며

2015년, 시장 논리에 매몰된 문학의 독립 활동을 지향하는 사단법인 문학실험실(대표 이인성)의 설립과 함께, 한국 문학비평을 획기적으로 쇄신하고 새로운 문학적 전망을 제시했던 고(故) 김현의 25주기를 기념하여 제정된 ‘김현문학패’는 그 제정 목적과 시행 원칙(첨부한 ‘김현문학패 소개’ 참조)에 따라 제1회 수상자로 성기완 시인과 한유주 소설가를, 제2회 수상자로 이제니 시인과 김태용 소설가를, 3회 수상자로 강정 시인과 서준환 소설가를, 제4회 수상자로 신영배 시인과 백민석 소설가를, 제5회 수상자로 김경후 시인과 박솔피 소설가를, 제6회 수상자로 신동옥 시인과 김숨 소설가를, 제7회 수상자로 김언 시인과 윤해서 소설가를, 제8회 수상자로 시인 신해옥과 정지돈 소설가를 선정한 바 있다.

김현문학패 시행 9년차를 맞은 금년 1월, 본 선정위원회(김정환, 김태환, 김형중, 조강석, 이인성)는 규정에 따라, 1) 2023년 현재 김현의 타계 나이인 만 48세(1975년생) 이하로서, 2) 등단 이후 해당 장르에서 2권 이상의 저서를 펴냈으며, 3) 그 마지막 저서가 지난 3년(2020~2022년) 사이에 나온 시인·소설가들의 명단과 그들의 출간 도서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가급적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김현과 문학실험실의 문학관을 잘 반영해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20여 명의 문인에게 비공개로 전제로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 이를 참고자료로 채택하였다.

이후 2월부터 6월까지 압축된 후보자들의 전 작품을 검토하며 다각도의 토론을 거친 본 선정위원회는, 이제 김현 33주기(6월 27일)에 즈음하여 제9회 수상자로 황유원 시인과 김이설 소설가를 결정·발표하게 되었다.

### 제9회 김현문학패 선정의 말

#### 황유원—삶의 갈림길을 발견하고 깊게 사유하여, 그 절박함을 대면시키는 시인

황유원의 시는 어떤 절박함 속으로 우리를 이끈다. 그것은 정치와 생계의 절박함이 아니라 헤어날수록 매번 두 갈래 길 앞에만 서야 하는 막막함 때문에 입술을 깨물 때의 절박함이다. 황유원 시인은 어쩌면 가장 형이상학적이기도 할 삶의 갈림길들을 무척이나 실감 나게 그러나 별로 대수롭지 않은 듯이 발견해낸다. 사실관계 적시에도 죄가 있을까? 통합과 화해와 위안은 당위적 요청으로만 존재한다고, 고개 돌리고 등 돌리고 발길 돌려도 우리는 언제나 갈림길 앞에만 서게 된다고 황유원 시인은 토설한다. 그의 시에 생생함과 막막함이 공존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그리고 그가 어떤 경우에도 결국은 사태가 절박해지는 데까지 사유를 밀고 가는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다. 그의 시는 우리를 갈림길 앞에 세운다.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은 사후의 것이다. 그의 시는 우리를 선택 앞에, 따라서 어떤 사태도 태연해지지 않는 현장 속으로 소환한다. 삶이 알갭게 깊어지는 땅을 그의 언어는 파놓고 있다. 그에게 김현문학패를 수여하는 것은 깊이가 우리를 부르는 곳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세워 놓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기 때문이다. 시류와 전략에 휩쓸리지 않는 힘센 언어가 우리를 잠시 넋 놓고 하기 때문이다.

#### 김이설—피하고 싶은, 그러나 엄존하는 세계 속으로 우리를 이끄는 소설가

올해 김현문학패 소설 부문 수상자는 작가 김이설이다. 김이설의 소설을 읽는 것은 힘든 일이다. 난해해서가 아니라, 대면하고 싶지 않은, 그러나 엄존하는 세계 속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때문이다. 평정을 유지하며 읽기 힘들 만큼, 도를 넘는 생활고와 통제되지 않는 본능이 날 것 그대로 드러나는 세계가 김이설의 소설 세계다. 그러나 문학이 종종 감수해야 할 임무 중 하나가 바로 그것이다. 만약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인간과 짐승의 구별조차 사라진 비식별역이 되어가고 있다면, 문학 또한 생물학과 구별하기 힘들어지는 일을 감수해야 한다. 김이설은 드물게 바로 그 임무를 오랫동안 수행해온 작가다. 그와 같은 작업에 들었을 노고와 인내에 대해 김현의 이름으로 문학패를 수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 선정위원

김정환 (시인)  
김태환 (문학평론가, 서울대 독문과 교수)  
김형중 (문학평론가, 조선대 국문과 교수)  
이인성 (소설가, 문학실험실 대표)  
조강석 (문학평론가, 연세대 국문과 교수)

## 김현문학패 소개

### 제정 목적과 시행 원칙

문학실험실은 한국문학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이루어낸 비평가 고 김현의 25주기(2015년 6월 27일)를 맞아, 그를 되새기고 기리며, 그의 이름으로 한국문학의 진정한 질적 진화를 위해 '뜨거운 상징'(김현의 표현)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문학상을 제정·시행키로 결정하였다. '김현문학패文學牌'는 문학상으로서의 분명한 개성을 지향한다. 그리하여 장기적으로는 이 상을 통해 한국문학의 한 조류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 문학적 특성의 일관성을 최대한 유지해나갈 것이다(패에는 패거리라는 뜻도 담겨 있다). 우선, 이 문학패는 김현의 미래지향적 문학관에 근거를 두고 그가 일관되게 옹호한, 한국문학에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는 실험정신을 기본적인 선정 지침으로 삼는다. 그리고 일정한 선정 조건 아래(아래 참조), 한 해 동안 추수된 단일 작품이나 저서를 대상으로 한 '작품상'이 아니라, 한 작가의 전 작품을 평가하여 수여하는 '작가상'의 성격을 띤다.

### 시행 규정

'김현문학패'는 위의 목적에 따라 매년 시인·소설가 각 1명씩을 선정하여 기념 문학패와 창작지원금(시 1,000만 원/소설 1,500만 원)을 수여한다. 단, 그 수여 대상자는, (1) 선정 연도를 기준으로 만 48세(김현의 타계 나이) 이하이며, (2) 등단 후 5년 이상 활동하면서 해당 장르의 저서를 2권 이상 출간하였고, (3) 그중 가장 최근의 저서를 선정 연도 전해 말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출간한 시인·소설가로 한정한다. 선정위원회는 위원들을 장르별로 분리하지 않고 선정 과정을 합동 토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수여 후보 자격이 3년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 명단이나 토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최종 선정자와 선정 이유만을 발표한다.

### 시행 절차

매년 1월, 위 조건에 부합하는 시인·소설가의 명단과 출간 저서 목록을 작성하여 일정 수의 추천위원들에게 복수의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선정위원회가 이를 참조하여 최종 후보자들을 압축한다. 2월부터 6월까지 선정위원회는 후보자들의 전 작품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뒤, 6월 말 김현 기일에 즈음하여 최종 선정자를 결정 발표한다. 그리고 시상식은 9월 말에 시행한다.

### 역대 수상자

제1회 (2015)	시 성기완	소설 한유주
제2회 (2016)	시 이제니	소설 김태용
제3회 (2017)	시 강정	소설 서준환
제4회 (2018)	시 신영배	소설 백민석
제5회 (2019)	시 김경후	소설 박솔뫼
제6회 (2020)	시 신동욱	소설 김숨
제7회 (2021)	시 김언	소설 윤해서
제8회 (2022)	시 신해욱	소설 정지돈
제9회 (2023)	시 황유원	소설 김이설

## 김현 1942~1990

1942년 전라남도 진도에서 태어나 목포에서 성장한 김현은 서울대 문리대 불문과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문학에 뜻을 두기 시작했다. 1962년 『자유문학』에 「나르시스 시론」을 발표하며 등단한 그는 곧 김승옥·최하림 등과 『산문시대』 동인을 결성하게 되고, 그의 열정적 동인 활동은 이후 『사계』, 『68문학』 등을 거쳐, 1970년에 김병익·김치수·김주연과 함께 계간 『문학과 지성』을 창간하고 1975년에 문학과지성사를 창립하는 문학사적 결실로 맺어진다.

1971년 서울대 교양과정부 전임강사로 취임한 후 서울대 인문대 불문과로 옮겨 재직하면서, 그는 프랑스 문학 연구자이자 한국 문학비평가로서 더욱 왕성한 활동량과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기 시작한다. 한국 문학 영역에서는 문학사 기술의 새 바람을 몰고 온 『한국 문학사』(김윤식 공저)와 『한국 문학의 위상』을 비롯하여, 『상상력과 인간』, 『사회와 윤리』로부터 『문학과 유토피아』, 『젊은 시인들의 상상세계』, 『책임기의 괴로움』 등을 통과해 마지막 『말들의 풍경』에 이르는 일련의 평론집들이 그의 놀라운 공감 능력과 정치한 분석·해석을 과시하고 있으며, 프랑스 문학 영역에서는 『프랑스 비평사』를 시발점으로 바슐라르, 제네바학파, 르네 지라르, 미셸 푸코 등의 비평 세계와 방법론을 추적하는 역작 연구서들과 편서들이 그의 넓은 문학적 관심에 깊이를 더해주고 있다.

불행하게도 40대 중반의 나이에 발병한 간염이 서서히 그의 몸을 허물어나갔지만, 그의 문학적 열정과 사명감을 중단시키지는 못했다. 계속되는 집필·연구 활동 속에 간염은 기어이 간암으로 악화되었고 1990년, 때 이른 그의 죽음을 몰고 왔다. 향년 48세.